

광주·전남 국립대 취업률 하위권

전남대 54.3% 불과... 부산대는 64.4%

장학금 지급률은 타 지방에 비해 높아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취업률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방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1개 대학의 정보를 담은 1일 오후 2시 개통된 포털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전남대의 취업률은 54.3%로 국립대 중 최하위권이었다. 대학간 비교는 대학알리미에 제시된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재학생 총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주요지표 5개 항목을 참고했다. 전남대의 취업률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 비해 많게는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부산대의 취업률은 64.4%였고, 경북대 63.5%, 강원대 60.3%, 충남대 59.1% 등이었다.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71.4%, 63.7%로 전국 대학 평균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지만,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37.8%와 35.7%로 나타나 형편없이 낮았다. 전남대의 정규직 취업률은 38.2%로 부산대(54.6%)나 경북대(53.6%)에 비해 15% 포인트 이상 처지는 것으로 조사됐고,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대(39.4%)나 충남

대(41.6%)보다도 낮았다. 재학생 총원율은 전남대가 107.9%로 부산대와 같고, 경북대(118.8%)나 충남대(114.5%)에 비해서는 낮았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101.9%, 102.7%로 강원대(95.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6.9%로 부산대(71.3%), 경북대(70.9%), 충남대(66.5%)에 비해 다소 높았고, 강원대(8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1.1%, 70.5%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학금 지급률은 광주·전남지역 국립대가 다른 지방 국립대보다 높았다. 전남대가 13.7%로 지방 국립대 중 가장 높았고, 충남대 12.1%, 목포대 11.2%, 경북대 10.5%, 강원대 7.9%, 부산대 7.8%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총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에서는 광주·전남 국립대가 다른 지방대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았으나 취업률이 유독 낮았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이 약한 외부요인과 교수 등 학교 측의 소극적 자세 등 내부 요인이 복합

지역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재학생 총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전남대	54.3	38.2	107.9	76.9	13.7
목포대	71.4	37.8	101.9	71.1	11.2
순천대	63.7	35.7	102.7	70.5	-
강원대	60.3	39.4	95.4	87.8	7.9
경북대	63.5	53.6	118.8	70.9	10.5
부산대	64.4	54.6	107.9	71.3	7.8
충남대	59.1	41.6	114.5	66.5	12.1
조선대	62.8	55.9	103.4	62.4	10.7
동아대	63.7	45.7	107.9	53.4	8.2
영남대	65.4	46.0	112.5	57.8	7.6

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거점 사립대의 경우, 조선대의 취업률이 62.8%로 동아대(63.7%)와 영남대(65.4%)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정규직 취업률은 55.9%로 동아대(45.7%), 영남대(46%)보다 10% 가량 높았다.

조선대의 재학생 총원율은 103.4%로 동아대(107.9%)와 영남대(112.5%)에 비해 낮았으나 전임교원 확보율은 62.4%로 동아대 53.4%, 영남대 57.8%에 비해 높았다. 장학금 지급률도 조선대가 10.7%로 동아대(8.2%), 영남대(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법 생활 끝낼 뉘 대회

광주지검과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1일 오후 전남대 응시관에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과 성범죄 지식을 묻는 '제1회 법 생활 끝낼 뉘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중·고생 50명이 출전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목포 초등학교 등 80명 태극서 나흘째 발 묶여

반정부 시위대의 태극 방곡공장 점거 사태로 한국인 관광객 1천여명의 발이 일주일째 묶여있는 가운데 태극로 동아대(45.7%), 영남대(46%)보다 10% 가량 높았다. 1일 목포 모두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목포 꿈꾸는 요셉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64명과 교사 14명, 학부모 2명 등 80명은 9박10일 일정으로 태극과 갑보디아 문화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태극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공항 폐쇄로 2일 현재 나흘째 발이 묶여 있다. 이 학교는 불교국가인 태극과 갑보디아를 탐방하는 '제2회 해외선교문화답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현재 이 학교 학생과 교사 등은 방곡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춘부리 선교센터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출국 순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며, 오는 3일 파타야 군부대 공장에서 타이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귀국일정이 태극 현지사정에 따라 유동적인 데다, 큰 일교차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감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현지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학생들과 체류중인 김상남 목포 모두투어 대표는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연락처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梨花 등록금 年 880만원 최고

광주·전남선 조선대 651만원 가장 비싸

전국 41개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연간 등록금이 가장 많은 곳은 이화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일부터 시작된 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개된 각 대학들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2008학년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은 이화여대가 880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명여대(868만2천원), 연세대(865만1천원), 강남대(863만1천원), 을지대(860만8천원), 추계여대(858만5천원), 고려대(852만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대 중에서는 동아방송예술대 747만2천원, 동서울대 709만6천원, 두원공과대 677만9천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조선대로 651만2천원이었다. 다음으로 남부대가 642만원,

동신대 636만1천원, 호남대 617만9천원, 광주대 608만3천원, 대불대 585만3천원 순이었다. 국립대인 전남대는 425만1천원, 목포대 397만5천원, 광주교대 283만8천원이었다. 반면 영산선학대는 100만원, 목포해양대는 157만8천원 등 단 2곳이 100만원대 등록금을 받았으며 200만원대는 목포 가톨릭대로 297만3천원이었고 전체 평균은 478만6천원이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전남대가 5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대 416명, 대불대 300명, 조선대 249명, 광주대 222명 순이다. 10명 미만인 학교는 영산선학대(1명), 광주 가톨릭대(2명), 호남선학대(4명), 남부대(6명) 등 주로 종교 관련 대학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허위 계약자 내세워 수십억 부당 대출

허위 아파트 분양 계약자를 앞세워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시공사 대표 등 일당 3명이 검찰에 연루된 채 구속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이석환 지청장)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아파트 건설 시공사 대표 민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시공사 대표 전모(48)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4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민씨 등은 지난 2004년 6월 해남군에 H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협

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11월까지 허위 분양계약자 명의 자 62명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47억5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분양권이 저조하자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 관계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준공 후 곧바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세 부도난 점과 대금 정산내역 등으로 미뤄 이른바 '흑자부도'의 의혹이 깊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최권일기자 cki@

김남일 前 광주시의원 점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1일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 거래를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남일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아들(35)과 복지법인 인·허가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강모(49·5급)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고령인 점과 이미 의원직에서 제명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강제역시 뇌물 액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모(여·48)씨에게 '아들 명의로 허가를 받으면 뒤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 주겠다'고 속여 토지매입 비용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목포 원룸 화재' 무심코 버린 공초 탕
○원룸 복도에 무심코 버린 담배 공초로 인해 외국인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30대가 경찰에 잡혀.
○친구 집을 봐주던 20대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화재로 중태에 빠진 사건(본보 1일자 7면)을 수사중인 목포경찰은 1일 이모(30)씨를 붙잡아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우던 담배를 2층 복도에 있던 소파에 버렸다가 화재를 일으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N(여·28)씨가 연기질식과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
○경찰은 이씨의 실화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종알콜농도 0.112% 상태로 차를 몰고 목포 하당에서부터 화재현장까지 음주운전한 사실도 밝혀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추가. /목포=이상휴기자 lsh@

봄/선/동 아이엘리시아
www.tellysia.com 062)671-1199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064-744-1109